

생명사랑,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주간

2016. 12. 19. ~ 12. 25.

# 전남농업정보

116

VOL

## 기상전망

## 농산물 주간 동향 (관측정보)

- 과채류 (토마토 · 오이 · 풋고추 · 애호박 · 딸기) 관측
- 한육우 사육과 가격전망

##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곡성군 우수 농식품, 태국 진출 판로 열었다!
- 장흥군 쌀 스낵 수출 잭팟 맛도 품질도 세계적

## 저비용 · 고소득 농업기술정보

- 블루베리 잎이나 가지만으로 품종 알아낸다
- 시설재배, 난방비 줄이는 관리법

## 정책동향

-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한다
- 계란 수급안정화 방안

## 사업신청 및 홍보

- 내 농장 병해충 스마트폰으로 진단 · 처방 받는다
- 농업회계, 쉽게 기록하고 활용하자



전라남도  
JeollaNamdo

## 요 약

### ❁ 주간 기상전망 ..... 5

- ▶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음
- ▶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4~0도, 최고기온: 6~8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음
- ▶ 강수량은 평년(0~1mm)보다 적겠음

### ❁ 농산물 주간동향(관측정보) ..... 8

- ▶ 과채류 (토마토·오이·풋고추·애호박·딸기) 관측
- ▶ 한육우 사육과 가격전망

### ❁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 10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 ❁ 전남 시·군 농정 동향 ..... 12

- ▶ 순천시, 2017년도 고소득 작목 육성 위해 25억 투자
- ▶ 담양군, 전남도 농산물 유통·식품 업무평가 최우수상 수상
- ▶ 곡성군, 2016년산 공공비축미곡 8,787톤 매입
- ▶ 고흥군, 농업기술센터 야간 영농상담실 운영
- ▶ 보성군, 2016년 밭 직불금·벼 경영안정대책비 5,549백만원 지급
- ▶ 화순군, 아열대작물연구회 창립
- ▶ 영암군, 초유은행 운영해 건강한 송아지 육성
- ▶ 함평군, 유용미생물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

## ❁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20

- ▶ 곡성군 우수 농식품, 태국 진출 판로 열었다!
- ▶ 장흥군 쌀 스낵 수출 잭팟 맛도 품질도 세계적
- ▶ 2016 수출농업 결산... 신선식품 수출 늘고 온라인·모바일 판로개척 활발

## ❁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 26

- ▶ 유통채널별 딸기 포장박스 구성요소 및 표시사항 분석
- ▶ 온난화 대응 남부지역 벼 뒷그루 이탈리아라이그라스 파종 적기 및 한계기
- ▶ 패션프루트 제산을 위한 에틸렌 적정 처리 농도
- ▶ 자생쑥을 이용한 아로마 쑥비누 제조방법
- ▶ 블루베리 잎이나 가지만으로 품종 알아낸다
- ▶ 국산 딸기 '홍실'도 있어요
- ▶ 시설재배, 난방비 줄이는 관리법
- ▶ 토양 속 살균제 하루 안에 없애는 미생물 발견
- ▶ 젓소 보증씨수소 2마리 선발

## ❁ 정책 동향 ..... 38

- ▶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한다
- ▶ 계란 수급안정화 방안
- ▶ 「콩 농업수입보장보험」 가입농가에 가뭄과 태풍 등 피해에 따른 보험금 지급
- ▶ 긴급상황 대비 항원뱅크 구축 추진

▶ 중국, 스마트농업에 대한 관심 증가

▶ 덴마크, 유기농산업

▶ 해외 곡물시장 동향 '2016. 12. 26. (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밀 선물 가격은 풍부한 국제 공급량과 미국산 밀에 대한 수요 둔화로 인해 전일 대비 하락하였음.

· 옥수수 :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옥수수 선물 가격은 풍부한 미국 공급량과 아르헨티나 지역에 내린 비로 인해 전일 대비 하락 마감하였음.

· 대두 : 시카고 선물 거래소 대두 선물 가격은 아르헨티나에 내린 비로인해 생산량 감소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최근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자료 : CME, KCBT, USDA, IGC, Bloomberg, Reuters, Rice Online, T-Storm weather, 中 · 日)

▶ 전남농기원, 전국단위 농업기술대상 우수연구팀상 수상

▶ 내 농장 병해충 스마트폰으로 진단·처방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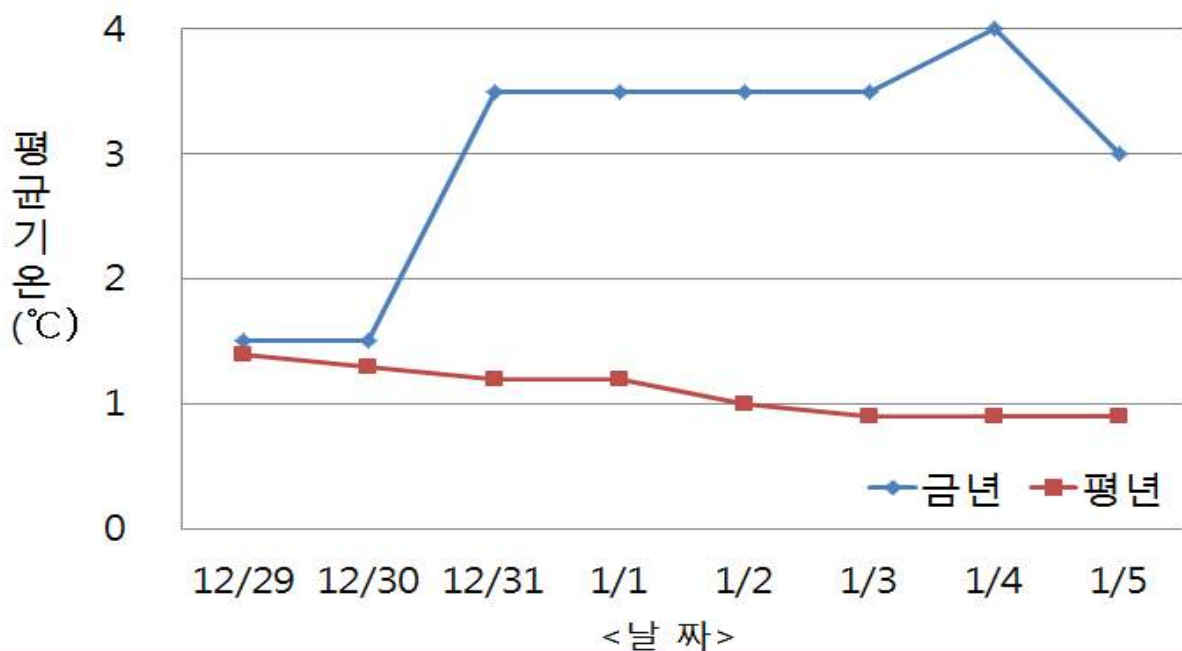
▶ 농업회계, 쉽게 기록하고 활용하자

# 1. 주간 기상전망

## ■ 기상청 중기예보(광주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C)			최고기온(°C)			최저기온(°C)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3.0	1.1	1.9	7.3	5.9	1.4	-1.3	-2.8	1.6	1.1
12. 29.(목)	1.5	1.4	0.1	5.0	6.2	-1.2	-2.0	-2.4	0.4	1.0
12. 30.(금)	1.5	1.3	0.2	6.0	6.1	-0.1	-3.0	-2.6	-0.4	0.9
12. 31.(토)	3.5	1.2	2.3	8.0	5.9	2.1	-1.0	-2.7	1.7	1.0
1. 01.(일)	3.5	1.2	2.3	8.0	5.9	2.1	-1.0	-2.8	1.8	1.1
1. 02.(월)	3.5	1.0	2.5	8.0	5.8	2.2	-1.0	-2.9	1.9	1.0
1. 03.(화)	3.5	0.9	2.6	8.0	5.7	2.3	-1.0	-3.0	2.0	1.1
1. 04.(수)	4.0	0.9	3.1	8.0	5.8	2.2	0.0	-3.0	3.0	1.1
1. 05.(목)	3.0	0.9	2.1	7.0	5.7	1.3	-1.0	-3.0	2.0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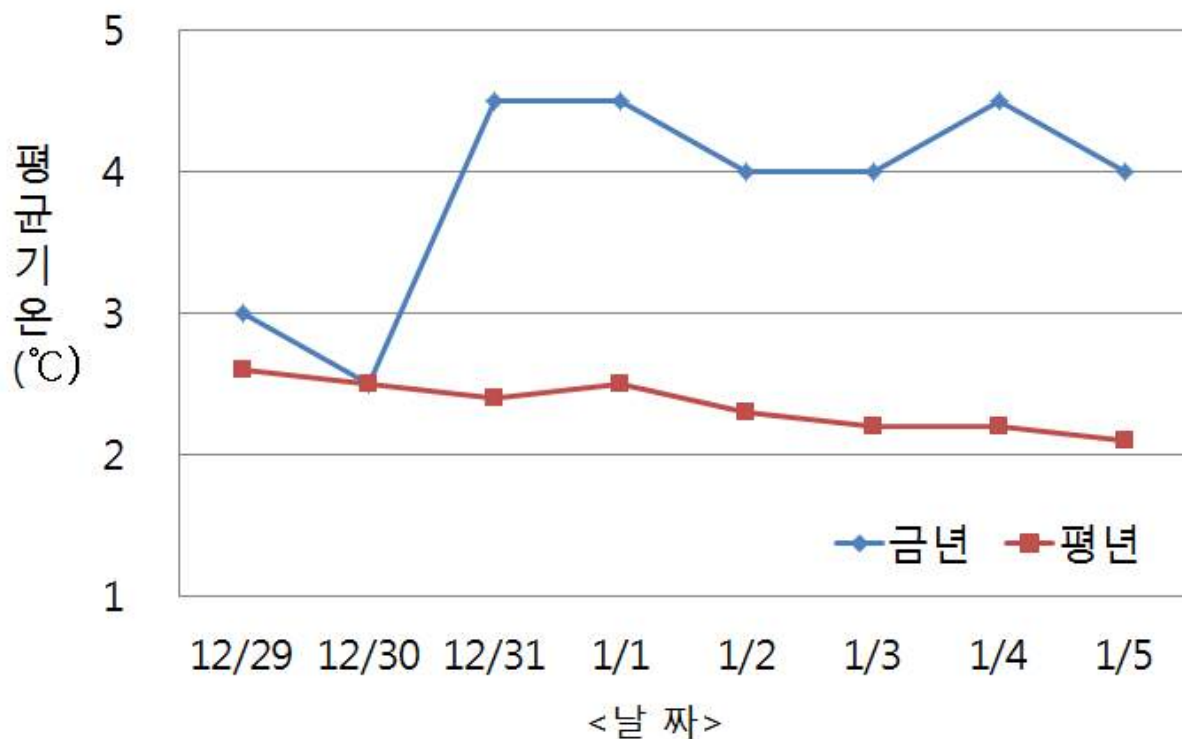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 기상청 중기예보(목포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3.9	2.4	1.5	7.9	6.9	0.9	-0.1	-1.0	0.9	0.8
12. 29.(목)	3.0	2.6	0.4	6.0	7.2	-1.2	0.0	-0.8	0.8	0.8
12. 30.(금)	2.5	2.5	0.0	7.0	7.0	0.0	-2.0	-0.9	-1.1	0.6
12. 31.(토)	4.5	2.4	2.1	9.0	7.0	2.0	0.0	-0.9	0.9	0.6
1. 01.(일)	4.5	2.5	2.0	9.0	7.1	1.9	0.0	-0.9	0.9	0.7
1. 02.(월)	4.0	2.3	1.7	8.0	6.9	1.1	0.0	-1.0	1.0	0.7
1. 03.(화)	4.0	2.2	1.8	8.0	6.8	1.2	0.0	-1.1	1.1	0.8
1. 04.(수)	4.5	2.2	2.3	8.0	6.8	1.2	1.0	-1.2	2.2	0.8
1. 05.(목)	4.0	2.1	1.9	8.0	6.7	1.3	0.0	-1.3	1.3	1.1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 기상청 중기예보(여수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4.6	3.1	1.6	8.4	7.0	1.4	0.9	-0.2	1.0	0.6
12. 29.(목)	3.5	3.4	0.1	6.0	7.4	-1.4	1.0	0.2	0.8	0.5
12. 30.(금)	3.0	3.3	-0.3	7.0	7.2	-0.2	-1.0	-0.1	-0.9	0.3
12. 31.(토)	4.5	3.2	1.3	9.0	7.1	1.9	0.0	-0.2	0.2	0.3
1. 01.(일)	5.5	3.2	2.3	10.0	7.2	2.8	1.0	-0.1	1.1	0.5
1. 02.(월)	5.0	3.0	2.0	9.0	7.0	2.0	1.0	-0.2	1.2	0.5
1. 03.(화)	5.0	2.9	2.1	9.0	6.8	2.2	1.0	-0.3	1.3	0.6
1. 04.(수)	5.5	2.8	2.7	9.0	6.8	2.2	2.0	-0.3	2.3	0.7
1. 05.(목)	5.0	2.8	2.2	8.0	6.6	1.4	2.0	-0.3	2.3	1.0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2. 농산물 주간동향(관측정보)

### 과채류 (토마토 · 오이 · 풋고추 · 애호박 · 딸기) 관측

- 가격전망 : 토마토·일반풋고추를 제외한 과채류 가격 작년보다 낮을 전망
  - 일반토마토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작년보다 높은 20,000~24,000원/5kg 전망
  - 백다다기오이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작년보다 낮은 44,000~48,000원/100개 전망
  - 청양계풋고추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작년보다 낮은 38,000~43,000원/10kg 전망
  - 애호박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작년보다 낮은 17,000~20,000원/20개 전망
  - 딸기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작년보다 낮은 20,000~22,000원/2kg 전망
- 정식의향 : 일반토마토 12월~내년 2월 정식 감소, 백다다기오이는 증가할 듯
  - 토마토(일반·원형 방울) 12월~내년 2월 정식면적 지난해보다 감소할 듯
  - 백다다기오이 12월~내년 2월 정식면적 지난해보다 증가 전망
  - 취청오이·애호박·풋고추(청양계·녹광) 12월 정식면적 지난해와 비슷할 전망
  - 수박 12월 정식면적 지난해와 비슷하나, 2017년 1~2월은 감소할 듯
  - 참외 2017년산 정식면적 지난해와 비슷할 전망
  - 과채류 12월~2017년 2월 정식의향면적 지난해대비 증감률

단위 : %

	토마토		오이		애호박	풋고추		수박	참외
	일반	방울 (원형)	백다다기	취청		청양계	녹광		
12월	-2.2	-1.9	1.1	0.2	-0.4	0.3	-0.2	0.4	0.2
내년1~2월	-1.2	-1.3	1.9	1.1	3.1	1.5	-3	-3.6	-0.6

## 한육우 사육과 가격전망

### □ (사육전망) 내년 3월 한육우 사육 마릿수 올해와 비슷할 전망

- 내년 3월은 지난해 동월(260만 마리)과 비슷한 260만 마리(한우 247만 마리) 전망

### □ (공급전망) 내년 1~2월 국내산 쇠고기 공급 지난해보다 감소 전망

- 사육 마릿수 감소로 1~2월 도축은 지난해보다 7% 내외 감소 전망
- 쇠고기 수입량 지난해보다 6% 내외 증가 전망

### □ (가격전망) 1월 이후 한우 도매가격 수요 감소로 약세 전망

- 한우고기 공급이 감소하나 수요 불확실성 확대로 내년 1월 한우 1등급 도매가격 12월과 비슷한 수준 전망
- 한우 1등급 도매가격 전망치

단위 : 원/지육kg(만원/600kg)

구 분	12월	2017년 1월	2017년 2월
2016년	15,668 (561)	12월 대비 보합 (전년대비 약세)	1월 대비 약세 (전년대비 약세)
2015년	17,431 (626)	18,714 (673)	17,975 (646)
평 년	13,861 (498)	14,133 (508)	13,771 (495)

- 내년 1월 설 성수기 한우고기 수요 불확실성 확대
- 단기적으로 할인행사를 통한 한우고기 소비촉진 행사 필요
- 한우농가 조기 출하 자제, 계획 출하 요망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3.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6. 12. 26. 기준/단위 : 원)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12/26)	1주일전 (12/1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 작 배	쌀(일반계)	20kg	32,400	32,400	32,400	36,200	42,267	↓ 10.5	↓ 23.3
	콩(백태)	35kg	181,000	187,800	185,800	148,400	163,733	↑ 22.0	↑ 10.5
	고구마(밤)	10kg	24,800	24,800	24,800	22,400	22,707	↑ 10.7	↑ 9.2
	감자(수미)	20kg	32,200	32,600	30,800	25,600	25,413	↑ 25.8	↑ 26.7
채 소 류	배추(가을)	1kg	860	920	1,040	420	413	↑ 104.8	↑ 108.2
	양배추	10kg	14,800	14,600	16,600	3,675	4,947	↑ 302.7	↑ 199.2
	오이(다다기계통)	10kg	31,000	24,333	24,667	33,583	35,981	↓ 7.7	↓ 13.8
	애호박	8kg	22,800	21,800	18,400	25,650	25,883	↓ 11.1	↓ 11.9
	토마토	10kg	39,600	41,000	30,000	23,150	27,890	↑ 71.1	↑ 42.0
	당근	20kg	75,000	74,200	73,100	24,500	22,687	↑ 206.1	↑ 230.6
	건고추(화건)	60kg	580,000	580,000	580,000	792,000	870,667	↓ 26.8	↓ 33.4
	풋고추	10kg	59,600	51,200	61,100	52,250	53,590	↑ 14.1	↑ 11.2
	마늘(깐마늘)	20kg	146,800	148,000	148,000	143,000	110,080	↑ 2.7	↑ 33.4
	양파	20kg	21,400	21,200	20,700	33,200	18,920	↓ 35.5	↑ 13.1
	대파	1kg	2,560	2,440	2,495	1,995	1,558	↑ 28.3	↑ 64.3
	파프리카	5kg	26,200	26,000	23,950	23,550	29,777	↑ 11.3	↓ 12.0
	멜론	8kg	27,600	28,600	26,600	28,150	28,434	↓ 2.0	↓ 2.9
	방울토마토	5kg	28,800	27,800	19,900	14,950	19,370	↑ 92.6	↑ 48.7
	수박	1개	16,200	16,800	15,600	19,800	12,873	↓ 18.2	↑ 25.8
과 일 류	사과(후지)	10kg	38,800	38,800	37,800	35,400	43,689	↑ 9.6	↓ 11.2
	배(신고)	15kg	38,800	38,800	36,250	43,600	42,080	↓ 11.0	↓ 7.8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12/26)	1주일전 (12/1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특용 작물	참깨(백색)	30kg	523,000	523,000	509,600	529,000	544,333	↓ 1.1	↓ 3.9
	느타리버섯	2kg	14,200	14,600	13,800	11,600	11,973	↑ 22.4	↑ 18.6
	새송이버섯	2kg	8,400	8,200	8,200	8,200	8,480	↑ 2.4	↓ 0.9
축 산물 (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7,843	7,847	7,871	7,791	6,296	↑ 0.7	↑ 24.6
	돼지고기(삼겹살)	100g	1,984	1,983	1,869	1,989	1,853	↓ 0.3	↑ 7.1
	닭고기	1kg	5,255	5,137	5,369	5,341	5,411	↓ 1.6	↓ 2.9
	계란(특란)	30개	7,510	6,605	5,409	5,562	5,681	↑ 35.0	↑ 32.2
	우유	1리터	2,528	2,528	2,528	2,550	2,460	↓ 0.9	↑ 2.8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6. 12. 26. 기준)

구 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등 락 률(%)	
					전주 대비	전년 대비
큰 소 (600Kg)	암	5,472 천원	5,645 천원	5,842 천원	↓ 3.0	↓ 6.3
	거세	5,606 "	5,770 "	6,563 "	↓ 2.8	↓ 14.5
송아지 (6~7월)	암	2,579 "	2,638 "	2,528 "	↓ 2.2	↑ 2.0
	수	2,968 "	3,096 "	3,050 "	↓ 4.1	↓ 2.6
육우(600Kg)		2,891 "	2,893 "	3,422 "	↓ 0.1	↓ 15.5
젖소수송아지(7일령)		153 "	167 "	223 "	↓ 8.3	↓ 31.3
돼지(110kg)		326 "	342 "	362 "	↓ 4.6	↓ 9.9
육계(원/kg)		1,230 원	1,348 원	1,518 원	↓ 8.7	↓ 18.9
계란(원/특란10개)		1,837 "	1,470 "	1,036 "	↑ 24.6	↑ 77.3
오리(원/kg)		2,400 "	2,328 "	1,830 "	↑ 3.0	↑ 31.1

※ 한우(거세우) 생산비 : 6,294천원/마리 (△688) \* ( 5,658 - 2,332 + 2,968 = 6,294)

( '15년 생산비 ) ( '15년 송아지 가격 ) ( 현재 수 송아지 가격 )

- 육우 3,798, 돼지 297/110kg, 육계 1,278원/kg, 오리 1,944원/kg, 계란 1,051원/10개, 우유 763원/ℓ

\* 자료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 4. 전남 시·군 농정 동향

### ■ 순천시, 2017년도 고소득 작목 육성 위해 25억 투자

- 순천시는 미래농업을 이끌어 나갈 2017년 고소득 전략작목 7개 품목에 대한 신청 접수를 이달 말까지 받는다. 이러한 전략작목은 채소분야의 오이·미나리·딸기(묘), 과수특작분야의 참다래·복숭아·꽃감·유기농쌀이다.
- 시는 민선6기 공약사항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쟁력 있는 품목을 집중 지원하고자 『고소득 전략작목 육성계획』을 수립했고, 7개 품목에 대한 농업인 단체의 사업계획 공모를 통해 5년간의 세부 투자계획을 확정했다.
- 구체적으로는 △오이 ICT 스마트 팜과 연계한 시설 현대화 7억 △딸기(묘) 우량묘 생산을 통한 수출단지 조성 4억 △미나리 친환경 인증으로 농가소득 향상 1억 △참다래 품종갱신으로 수출 확대 9천 4백만원 등 총 25억원이 투자된다.
- 시는 이번 투자계획을 통해 조수입 1억원 이상 농가를 2017년 110, 2018년 140, 그리고 2021년에는 220농가까지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 공모 계획을 신청한 생산자 단체(법인·작목반)에서는 자체 회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 후, 해당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 시 관계자는 “사업대상자를 조기에 확정, 내년 영농활동에 활용될 수 있도록 생산자 단체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고소득 전략작목 육성을 통해 순천 미래농업을 이끌어 갈 기반을 조기에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처 : 순천시

## ■ 담양군, 전남도 농산물 유통·식품 업무평가 최우수상 수상

- 담양군이 전남도가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도 농산물 유통식품 업무평가'에서 '최우수상'에 선정, 1,000만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 이로써 담양군은 전남도 주관 농산물 유통식품 관련평가에서 7년 연속 수상권에 진입하는 영예를 안게 됨과 동시에 친환경농업의 선도지로서의 위용을 여실히 드러냈다.
- 이번 평가에서 군은 농산물 판촉 등 유통종합분야와 쌀 판매 및 브랜드쌀 육성, 산지유통 경쟁력 강화, 농식품 산업육성 등 4개 분야 22개 평가항목에서 7년 연속 높은 점수를 받아 좋은 결과를 성취했다.
- 군은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1년부터 지역 농업인이 땀 흘려 재배한 친환경 쌀의 최대 판로는 학교급식 납품임을 감안해 발 빠른 대처에 들어갔다.
- 이러한 노력의 결과, 성북구 내 학교와 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친환경 쌀 납품을 시작으로 노원·마포·송파·양천·성북·강북·강남을 비롯해 수도권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 등 155여개所に '대숲맑은 담양 친환경 쌀' 560톤을 납품했다.
- 특히, 작년도 평가 최우수상 수상으로 확보한 상사업비 1,000만원을 담양딸기의 본격적인 수출을 위한 홍보마케팅 자금으로 삼아 홍콩 야타백화점과 웰컴마트 등 8개소에서 담양딸기 홍보 프로모션을 진행해 작년에만 3억 2,000만원의 수출성과를 달성했으며, 올해에는 총 6억원의 수출을 예상하고 있다.

\* 출처 : 담양군

## ■ 곡성군, 2016년산 공공비축미곡 8,787톤 매입

-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지난 15일 오산면을 끝으로 2016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고 21일 밝혔다.
- 지난 11월 8일 목사동면을 시작으로 오산면까지 총 58회에 걸쳐서 공공비축미곡 총 8,787톤(219,691가마/40kg)을 매입했다. 이는 지난해 7,716톤(192,900가마) 보다 1,071톤이 증가한 양이다. 산물벼 170톤(4,266가마), 건조벼가 8,617톤(215,425가마)으로 집계됐다.
- 전체 매입량 중 특등 20.74(45,574가마), 1등이 70.46%(154,801가마)를 차지했다. 지난해(특등 40, 1등 77%)와 비교하면 다소 저조한 실적으로 이는 올해 벼 수확시기에 잦은 강우로 인해 품질이 떨어진 결과로 보인다.
- 군 관계자는 “공공비축미곡 매입으로 최근 쌀값 폭락에 따른 농민들의 근심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하며, “공공비축미곡 매입 시 우선 지급금(1등급품 45,000원)을 지급한 상태로 내년 1월 중 최종매입가격이 결정되면 사후 정산을 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 출처 : 곡성군



## ■ 고흥군, 농업기술센터 야간 영농상담실 운영

- 2017년 1~2월 매주 월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

- 고흥군 농업기술센터는 내년 2월까지 농한기를 이용한 과수분야 영농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영농상담실은 매주 월요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운영되며, 주로 과수의 재배, 토양관리, 비료관리, 병해충 방제 등의 상담이 이뤄진다.
- 영농상담실에 근무하는 이정양 농업연구사는 올해 농화학기술사를 취득하고 종자기사, 식물보호기사, 유기농업기사 등도 보유하고 있어 전문적인 영농상담이 기대된다.
- 상담을 원하는 농업인은 농업기술센터를 직접 방문해 영농에 관한 궁금한 점을 해결하고, 보다 심도 있는 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
- 농업기술센터 지용주 소장은 “농업인들이 일과시간에는 바빠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지 못해 궁금한 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이번 기회에 야간 영농상담실을 적극 활용해 궁금증을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출처 : 고흥군



## ■ 보성군, 2016년 쌀 직불금·벼 경영안정대책비 5,549백만원 지급

- 보성군(군수 이용부)은 총 12,521농가, 면적 11,271ha에 대한 총 5,549백만원의 2016년도 쌀 직불금,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지급했다.
- 사업별로 보면, 쌀 직불금은 6,807농가, 면적 5,897ha에 총 2,663백만원이,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5,714농가, 면적 5,375ha에 총 2,886백만원이 지급되었다.
- 직불금 지급규모는 쌀 고정 직불금의 평균 지급단가가 ha당 40만원(전년도 25만원/ha)으로 인상되었으며, 논 이모작(식량·사료작물)은 전년과 동일하게 50만원으로 지급됐다.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농가당 0.1~2ha까지 ha당 53만원을 지급했다.
- 한편 보성군은 농자재 가격상승 및 계속된 쌀값하락, 벼 수탈아 피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과 사기진작을 위해 벼 경영안정자금으로 군비 32억원을 추가 확보했으며, 내년부터 농가당 0.1~3ha까지 ha당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 출처 : 보성군



## ■ 화순군, 아열대작물연구회 창립

- 아열대작물 도입 및 기술정보 교류 등 새로운 소득창출 -

- 화순군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아열대작물연구회를 창립, 아열대 작물도입과 기술정보 교류의 장이 활성화되면서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이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 21일 화순군에 따르면 지난 16일 농업기술센터회의실에서 아열대 작물연구회 창립총회가 열렸다.
- 아열대작물연구회는 아열대작물을 재배하거나 관심있는 농업인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 기온이 상승되면서 2020년부터는 남부지방까지 아열대화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아열대 작물 재배기술 연구 및 유통·판매 등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직됐다.
- 이번 창립총회에서 정관제정, 임원선출, 아열대작물 재배 정보교류 등을 협의했으며, 초대 회장에 해바람덕택농장 이상덕 대표(57·도곡면)가 선임됐다.
- 이상덕 회장은 “회원 간 재배기술 향상을 위한 연구모임을 활성화해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 잡아 갈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화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지역에 적합한 아열대작물을 발굴해 기후변화 대응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아열대작물연구회와 상호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 출처 : 화순군

## ■ 영암군, 초유은행 운영해 건강한 송아지 육성

- 영암군에서는 송아지의 폐사율 감소 및 육성률 향상을 위해 한우협회영암지부에 초유은행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 초유은행은 젖소농가의 남은 초유를 수거하여 살균한 다음  $-80^{\circ}\text{C}$ 의 초저온 냉동고에서 냉동하여 저장했다가 필요한 한우농가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초유는 소가 새끼를 낳은 후 1~2일간 분비하는 진한 노란 우유를 말하며 각종 영양소는 물론 질병향상에 도움이 되는 면역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송아지 폐사의 원인이 되는 설사를 예방하는데 꼭 필요하다.
- 한우협회영암군지부에서는 2016년 9월부터 초유은행을 운영해 지금까지 90농가에 800리터를 공급했고, 낙농농가에서 지속적으로 초유를 공급받아 연간 2,000리터 정도는 한우농가에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영암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송아지는 태어난 후 2시간 이내에 면역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초유를 충분히 급여해야 각종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출처 : 영암군



## ■ 함평군, 유용미생물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

- 배양실서 유산균 등 5종 생산해 4,300여 농가에 160톤 공급 -

- 함평군(군수 안병호)은 영농에 필요한 유용미생물을 꾸준히 보급해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돕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 유용미생물은 비료나 농약을 대체해 환경오염을 개선하고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을 돕는다. 또 발작물인 마늘·양파·부추·딸기와 과수, 축산 등에도 두루 사용된다.
- 함평군농업기술센터는 배양실에서 유산균 등 5종을 생산해 4,300여 농가에 160톤을 공급했다. 또 배양실을 방문한 농가에 미생물의 균별 특성과 사용방법을 교육했다.
-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안전한 먹거리를 바라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춰 친환경 미생물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며 “농작물 병해충을 예방하고 작물생육에 도움을 주는 균주를 중점적으로 보급해 친환경농업에 기틀을 다지고 있다”고 말했다.

\* 출처 : 함평군

## 5.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 곡성군 우수 농식품, 태국 진출 판로 열었다!

- 100만 불 수출 MOU 및 곡성멜론(주) 30만불 수출계약 체결 -
-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4일에 걸쳐 태국 농산물 수출·유통시장을 방문해 활발한 시찰활동을 펼친 결과 태국 현지 수입업체인 Jidubang(Asia) Co., Ltd와 100만불 수출 MOU를 체결하면서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한 곡성군 우수 농식품의 해외시장 판로를 개척했다고 밝혔다.
- 특히, 이번 MOU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곡성멜론주식회사(대표 이선재)와 Jidubang(Asia) Co., Ltd간의 30만불 수출계약 체결로 고품질의 곡성딸기가 매주 태국으로 수출돼 현지 소비자들과 만나게 됐으며, 동남아 한류의 거점인 태국에서 곡성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 이번 태국 현지 업체와 30만불의 수출계약을 맺은 농업회사법인 곡성멜론(주)는 곡성읍 대평리·신리·장선리 지역의 딸기를 재배하는 34농가를 대상으로 공선회를 조직하고 철저한 재배교육을 통한 엄격한 품질관리로 생산한 고품질의 딸기를 싱가포르·베트남 등 5개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국내 대형유통업체에 납품하면서 곡성 ‘맘앳담은 딸기’의 우수성을 이미 인정받고 있다.
- 또한 곡성군은 농촌진흥청 딸기수출연구사업단 및 전라남도농업기술원과 공동으로 ‘수출딸기 신품종 시범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주 생산 품종인 ‘설향’의 단점을 보완해 과실이 단단하고 당도와 식미가 뛰어난 수출용 딸기 생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 출처 : 곡성군

## ■ 장흥군 쌀 스낵 수출 잭팟 맛도 품질도 세계적

- 내년부터 미리얼(주)의 제품을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추후 서유럽의 여러 국가로 판매를 확장하기로 했다.
- 김치 쌀 스낵은 매콤한 맛을 잘 살려 김치에 호불호가 엇갈리는 서양인들도 매우 맛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강황 쌀 스낵과 흑마늘 쌀 스낵은 유럽인들의 식품 트렌드인 글루텐 프리 건강 스낵으로 소개되어 호평을 받았다.
- 장흥군에서 우리 쌀을 이용해 스낵을 만드는 한 중소기업이 유럽과 미국 등지에 잇단 수출계약을 체결하며 이목을 끌고 있다.
- 소식의 주인공은 최근 유럽과 미국·중국·베트남 등지에 쌀 스낵을 수출계약을 체결한 농업회사법인 미리얼(주)(대표 김학선)이다.
- 올해 초부터 중국에 쌀 스낵 수출을 개시한 미리얼(주)은 지난 10월 베트남 바이어의 구매제의를 받았다.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하노이 무역관의 지원으로 2개월 간의 단기 협상 끝에 연 20만불 상당의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 약 2만불 상당의 쌀 스낵 1차 물량을 베트남으로 수출한다.
- 프랑스에서는 두 곳의 유통업체가 올해 초부터 미리얼(주)의 쌀 스낵에 관심을 보인 가운데 이중 한 곳과는 20만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현지에서 테스트에서 미리얼이 생산하는 김치·강황·흑마늘 쌀 스낵의 맛이 한국식품의 건강 이미지 등에 업고 대중적인 맛으로 유럽 소비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 이들 수입업체들은 프랑스 외에 영국·독일·스웨덴·네델란드·헝가리에서 현지인 들을 대상으로 한 고급 식품매장에서 이런 성과는 장흥군버섯연구원(책임연구원 김경제)이 미리얼(주)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전 세계의 쌀 가공식품 트렌드에 대해 조사하며 공동으로 이뤄낸 성과로 더욱 의미가 깊다.
- 미리얼(주)은 전남도청과 AT광주전남지역본부의 지원을 받아 다양한 국제수출상담회 참가하며 이 같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 지난 11월 30일 상담한 미국 유통업체와 장기적으로 미국 월마트 등에 입점을 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연간 20만불 가량의 쌀 스낵을 수출하기로 하였으며 중국업체와도 약 10억달러의 수출 MOU까지 체결하였다.
- 계획대로 수출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2017년부터는 서유럽·중국·미국에서도 전남의 쌀 스낵이 여러 국가의 쌀 스낵과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 현재 미리얼(주)가 신생 소규모 업체여서 해외에서의 대량 주문에 대해 대처하기에는 어려운 점은 있으나, 국내 쌀 소비 감소로 인하여 다양한 쌀 가공식품의 활성화와 소비가 중요한 시기에 아이디어와 제품만으로 유럽과 아시아·미국 시장에서 인정받았다는 것은 우리나라 쌀 가공식품 수출전략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 미리얼(주) 김학선 대표는 “장흥군버섯연구원의 지원으로 호주·동유럽·남아공·일본 시장 등에도 진출하기 위하여 제품 현지화 테스트와 신제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며,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2019년 말까지 약 20개국 이상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 수출 다변화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출처 : 장흥군

## ■ 2016 수출농업 결산.. 신선식품 수출 늘고 온라인·모바일 판로개척 활발

- 배·사과 등 신선식품 호조... 전통 홍보방식 탈피 수출 판로개척 노력 -

### □ 신선식품 수출 재도약 발판... 신시장 개척 활발

- 올해 수출농업에서 가장 돋보인 부분은 신선식품 수출이 확대돼 전체 농식품 수출에 탄력이 붙었다는 점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해 부진했던 신선식품 수출은 올해 배·사과를 비롯한 과실류와 김치 등의 시장다변화 및 공격적인 마케팅에 힘입어 11월 말 현재 9억 6,300만달러(37만 4,400톤/잠정치)로 기록, 지난해 동기보다 금액은 7.4, 물량은 11.6% 증가했다. 특히 이달부터 본격 수출이 개시되는 딸기·파프리카를 비롯한 주력 품목을 고려한다면, 올해 신선식품 수출은 전년(10억 30만달러) 수준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정부가 올해 중국 내륙 및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시장을 우리 농식품의 수출유망시장으로 보고 글로벌 케이푸드 페어(Global K-Food Fair)와 같은 대규모 판촉·홍보활동을 추진하며 수출확대를 이끌었고, 유망품목(샤인머스켓 포도 등 10개) 육성사업 '미래클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수출 먹거리 찾기에 나선 것도 소기의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 □ 중국 수출 길 열리다

- 중국은 물량 면에서 우리 농식품의 최대 수출시장이다. 올해 중국으로 수출된 우리 농식품 물량(11월 말 기준)은 86만 2,900톤(잠정치)으로 제일 많고, 금액으로는 9억 9,400만달러 규모로 일본(10억 6,130만 달러)에 근소한 차이를 보이며 2위를 기록했다.

○ 쌀은 우리 정부가 중국에 2009년 5월 우리 쌀 수입 허용을 요청한 이래 근 7년 만에 빗장이 열렸다. 올 1월 29일 전북 군산항에서 열린 ‘대중국 쌀 첫 수출 기념식’을 시작으로 한국산 쌀이 중국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 삼계탕은 대중국 수출협상을 시작한지 10년 만인 6월 29일 첫 수출 길에 오른 후 통관과정을 거쳐 8월부터 유통되기 시작했다.

○ 한동안 중단됐던 김치와 버섯수출도 올해 재개됐다. 검역문제로 난항을 겪었던 김치는 중국정부가 우리 김치수입이 가능하도록 수입김치 위생기준을 개정하면서, 지난해 12월 첫 공급이 이뤄졌고 올 상반기부터 한국산 김치가 본격 유통되기 시작했다. 2011년 덤핑문제로 대중국 수출에 고배를 마셨던 버섯도 지난 11월 aT 청다오물류센터에서 7.1톤 규모로 입고되면서 중국수출을 재개했다.

#### □ 전통 홍보방식 탈피 수출 판로개척 노력

○ 그간 우리 농식품의 수출 판로개척이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현지 유통업체 연계 판촉, 케이푸드 페어와 같은 대규모 홍보행사 개최 등 주로 오프라인 방식 위주였다면, 올해는 온라인·모바일 등 새롭게 각광받는 판로를 개척하는데 중점을 뒀다. 특히 중국시장에서 이러한 변화가 활발했는데, 누적 가입자 수가 11억명(올 9월 기준)에 달하는 중국판 카카오톡 ‘위챗(微信, 웨이신)’에 농식품부와 aT가 지난 10월 한국식품 전용 쇼핑몰 ‘한식왕(韓食王)’을 개설해 중국 내륙 2·3선 도시까지 판매망을 확대한 것이 대표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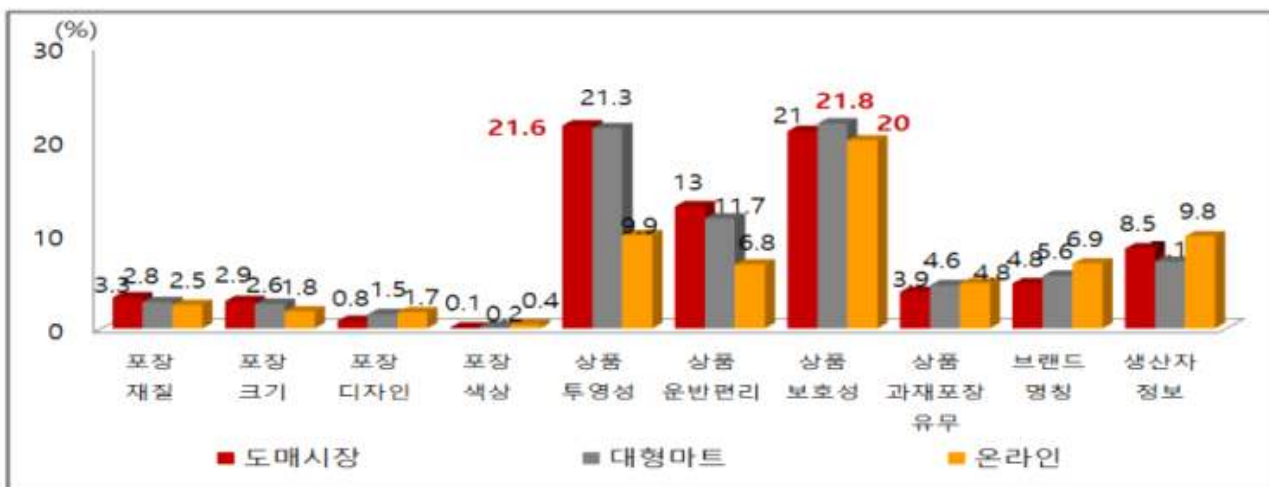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6.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 ■ 유통채널별 딸기 포장박스 구성요소 및 표시사항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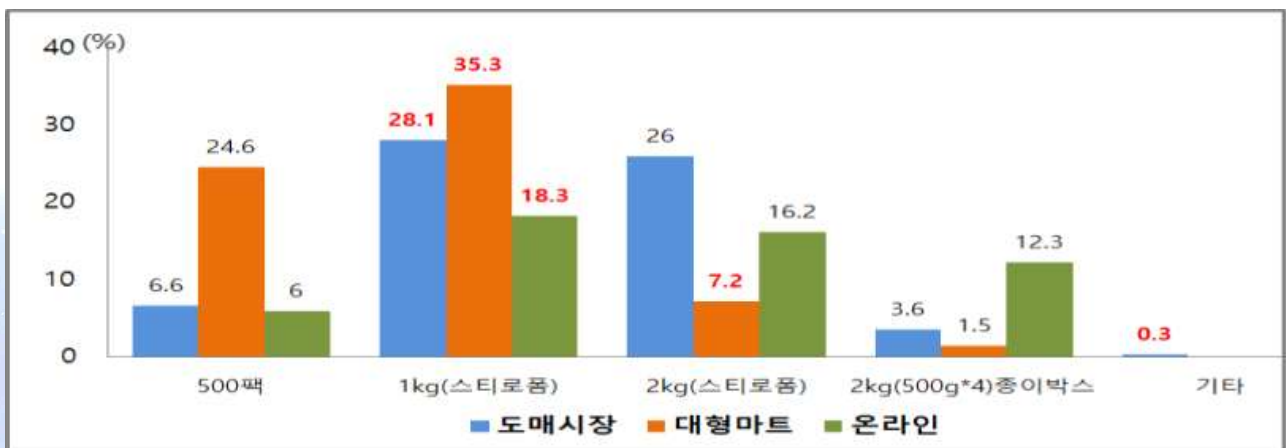
#### □ 개발기술 내용

- 도매시장에서 딸기를 구매할 경우 포장박스 표기사항의 중요순위(%)는 상품 투영성(21.6), 상품의 보호성(21), 상품의 운반편리(13), 생산자 정보(8.5), 브랜드 명칭(4.8), 상품 과대포장 유무(3.9), 포장박스 재질(3.3), 포장박스 크기(2.9), 포장박스 디자인(0.8), 포장박스 색상(0.1) 순임
- 온라인에서 딸기를 구매할 경우 포장박스 표기사항의 중요순위(%)는 상품의 보호성(20.2), 상품 투영성(9.9), 생산자 정보(9.8), 브랜드 명칭(6.9), 상품의 운반편리(6.8), 상품 과대포장 유무(4.8), 포장박스 재질(2.5), 포장박스 크기(1.8), 포장박스 디자인(1.7), 포장박스 색상(0.4) 순으로 나타남
- 포장박스 소재(재질)를 선택하는 이유로는 구입단위(중량)에 따라 (43.1), 사용 후 분리수거 편리성 (16.5), 친환경 소재 (14.4)순임
- 유통채널별 소비자가 선호하는 딸기 포장박스 구성요소 (2015)



## □ 개발기술 현장 활용방법

- 현장의 농업인이 딸기를 유통시장에 출하할 경우
- 도매시장 및 대형마트에 딸기를 출하할 경우 상품 투영성, 상품의 보호성, 운반편리, 생산자 정보를 표시한 포장박스 활용
  - 도매시장에서 선호하는 딸기의 규격은 1kg스티로폼 94명(28.1), 2kg스티로폼 87명(26), 500g팩 22명(6.6), 2kg(500g×4종이박스) 12명(3.6) 순으로 나타남
  - 대형마트는 1kg스티로폼 118명(35.3), 2kg스티로폼 87명(26), 500g팩 82명(24.6), 2kg스티로폼 24명(7.2), 2kg(500g×4종이박스) 5명(1.5) 순으로 나타남
- 온라인 출하시는 상품의 보호성, 상품 투영성, 생산자 정보표시, 브랜드 명칭을 노출하는 포장박스 활용
  - 온라인에서 선호하는 토마토의 규격은 5kg상자 84명(24.6), 3kg상자 48명(14.4), 1kg상자 24명(7.2), 10kg상자 13명(3.9) 순으로 나타남
- 포장박스 재질은 사용 후 분리수거 편리성, 친환경 소재 등을 고려하여 개발
- 유통채널별 소비자가 선호하는 딸기 포장박스 규격(2015)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농업경영연구소 김덕현, 손장환, 박 신, 조동호, 조명수, 임경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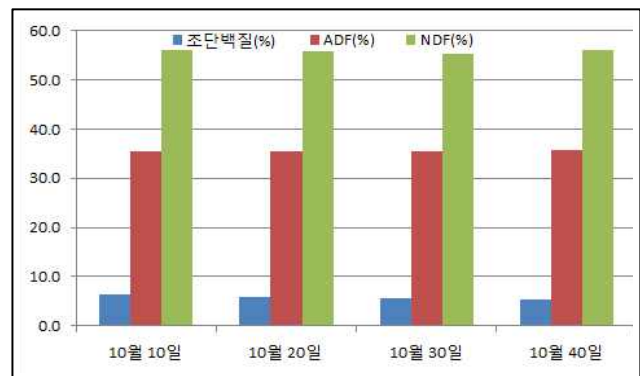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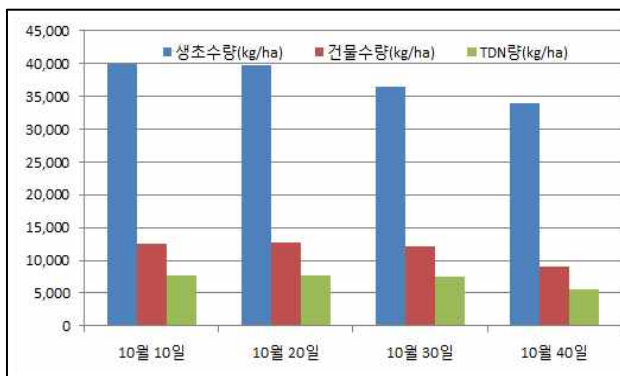
## ■ 온난화 대응 남부지역 벼 뒷그루 이탈리아라이그라스 파종시기 및 한계기

### □ 개발기술 내용

- 남부지역에서 최대 생산을 위한 벼 뒷그루로 이탈리아라이그라스 파종 시기는 10월 10~20일, 파종량은 ha당 30~40kg이 적합함
- 파종 한계기는 11월 10일경 이전으로 적기 파종을 실시하여야 함
- 재배방법

구 분	내 용	재배상 유의점
파종시기	10월 10 ~ 20일 (한계기 : 11월 10일)	지나친 조파는 어린 묘의 웃자라고, 만파는 뿌리내림이 약해 월동에 불리함
파 종 량 (kg/ha)	30 ~ 40	적기 파종에서 파종량 증가에 따른 효과 없음
파종방법	경운 → 파종(산파 또는 20cm 줄뿌림) → 진압 또는 흙덮기	종자가 깊이 묻히면 발아가 불량함으로 알게 복토함
시 비 량 (kg/ha)	질소(N) - 인산( $P_2O_5$ ) - 칼리( $K_2O$ ) = 140-150-150	ha당 퇴비 10톤과 토양의 pH가 6.0 이하인 경우 석회 2톤 살포
분시방법	질소 : 기비30, 이른봄 70%, 인산, 칼리 : 전량 기비	

○ ha당 30~40kg 파종량에서 파종일에 따른 수량성(좌) 및 사료가치(우) (2015)



### □ 개발기술 현장 활용방법

- 이탈리아라이그라스를 최대 생산하기 위해 적기파종(10월 10~20일)을 실시
- 파종량은 적기 파종 시 ha당 30~40kg이 적당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축산연구소 김기수, 박만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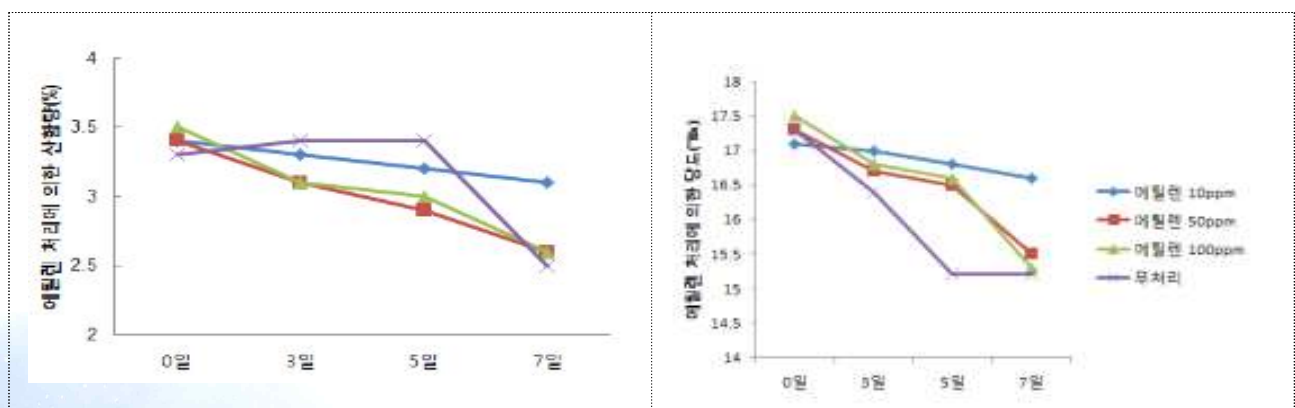
## ■ 패션프루트 제산을 위한 에틸렌 적정 처리 농도

### □ 연구배경 및 필요성

-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재배적지 이동과 새로운 소득자원 관심증가로 아열대 과수인 패션프루트 재배면적 증가
  - 전남지역 패션프루트 재배현황 : 17ha(담양·장성·무안·광양 등)
- 과비 및 장마철에 따른 일조량 부족 등으로 착색 불량한 패션프루트가 생산되기 때문에 착색증진과 제산을 위해 농가에서는 상온 저장함
- 상온 저장 시 과일표면은 쭈글거림이 심해져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부패과 발생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됨

### □ 개발기술 내용

- 과비 및 장마철에 의한 일조량 부족 등에 의해 착색 불량한 패션프루트는 25℃, 에틸렌 50ppm, 5일 처리하면 14.7% 제산



### □ 기술개발 파급효과

- 수확 후 관리를 통한 상품과율 증가 : 30 → 70%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 이소미, 변만호, 박재욱

## ■ 자생쑥을 이용한 아로마 쑥비누 제조방법

### □ 개발기술 내용

- 녹여붓기 비누베이스 총량에 쑥조합향료 2% 첨가 시 세정 후 촉감, 유연성, 향 확산성 등과 잔향기호도, 잔향지속성이 우수하였음
- 아로마 쑥천연비누 사용감에서 세정 후 잔향 및 잔향기호도 등이 우수하여 아로마 효능과 소취기능이 있었음



【아로마 향균쑥비누】

합료첨가량 처리구	첨가량	세정력	기포력	퍼짐성	보습력	산뜻함	유연성	세정후 잔향	잔향 기호도	총점
무처리	0	5	3	3	3	2	2	1	1	20
	0.5	5	3	4	3	3	3	2	3	26
	1	5	4	5	4	4	4	3	4	33
쑥그린	2	5	5	5	5	5	4	4	5	38
	3	4	4	4	5	5	5	5	5	37
	0.5	5	3	4	3	3	4	2	2	26
허브향	1	5	4	5	4	4	4	3	3	32
	2	5	5	5	5	5	5	4	3	37
	3	4	4	4	5	5	5	5	4	36

### □ 개발기술 활용 및 보급계획

- 쑥자원을 이용한 아로마 향균 쑥비누 제작기술을 원하는 지역에 보급하여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연계 사업화 할 계획임

### □ 기술개발 파급효과

- 아로마 효능이 있는 향균 쑥비누 등 다양한 가공상품 개발 판매화로 쑥 이용을 증대 및 소비촉진에 따른 지역 기업농 및 재배농가의 소득 증대
- 아로마 오일 및 쑥 추출물을 이용하여 농가에서 직접 쑥비누를 제작 판매할 경우 1인 1일 400개 비누 제작 시 순수익은 73만원으로 고소득 가능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연구소 조경숙

## ■ 블루베리 잎이나 가지만으로 품종 알아낸다

- DNA 이용한 블루베리 품종 판별 시스템 구축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DNA로 블루베리 품종을 구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블루베리 묘목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아 기능성이 뛰어난 과실로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아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다.
- 현재 국내에서는 약 100여종의 다양한 블루베리 품종을 재배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올해까지 생산·수입판매신고 건수는 1,080건이다.
- 국내에서 재배하고 있는 블루베리는 주로 묘목업자가 도입해 판매하고 있는데, 농가가 구입할 당시에는 품종의 구분이 어렵고, 구입한 품종의 특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 이러한 외국 품종의 도입, 묘목의 생산 및 유통현장에서 서로 다른 품종이 섞이는 경우에 생산자와 농업인 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 이에 농촌진흥청 과수과에서는 블루베리 DNA로 품종을 쉽고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출원했다.
- 국내·외 묘목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과수 묘목들은 1~2년생의 어린 나무(유묘)로 주로 초겨울부터 이른 봄에 거래된다.
- 이때는 과실을 포함한 품종 고유의 특성이 나타나지 않아 외관으로 품종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블루베리의 잎이나 가지, 과실 등의 형태적 특성을 조사하지 않고, 잎에서 추출한 DNA를 개발한 16가지의 분자표지 유전형상의 본질인 DNA의 염기서열 차이를 통해 식물체들의 유전적 차이를 쉽고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분자표지를 조합해 비교함으로써 현재 주로 유통하고 있는 블루베리 45품종의 판별이 가능하다.
- 이 기술은 간단한 실험기기와 시설만 갖추어져 있다면 잎이 없는 겨울철에도 가지에서 DNA를 추출해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생육 시기에 관계없이 언제나 이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품종 판별엔 1~2일이 걸린다.
- 이러한 품종판별 기술을 과수 묘목시장에 적용한다면 품종혼입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 국산 딸기 ‘홍실’도 있어요

- 현장평가 결과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품종 특성 우수 판정 -

- 경남농업기술원(원장 강양수)이 개발한 딸기 신품종 ‘금실’이 수출 유망 작목으로 수출을 시작한데 이어, 같은 시기에 개발한 신품종 딸기 ‘홍실’도 현장평가회에서 우수한 품질과 저장성을 관계자들에게 선보여 국산 딸기 신품종 수출확대에 밝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 도 농업기술원이 이달 초 산청군 수출딸기 생산단지에서 시범 재배한 ‘홍실’에 대하여 현장 평가회를 실시하였는데, 재배농가의 평가에 따르면 ‘홍실’ 딸기는 과육이 단단하고, 모양이 예쁘면서 기형과 발생이 적고 착과도 잘 되는 특성을 가져 재배가 용이 했다고 전했다. 다만 흰가루병에는 다소 약한 편이어서 재배 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 ‘홍실’ 품종에 대한 시장테스트도 12월 9일 서울 가락시장에서 실시하였는데, 유통 관계자와 소비자들에게 우수한 과실 특성을 과시함으로써 국내·외 시장 개척에 적합한 딸기 품종으로 인정 받았다.
- 특히 과실 형태가 균일하면서 과육이 단단한 편이라는 품종특성은 기존 개발 품종에 비해 장시간 보관이 가능하여 수출에 적합한 품종으로 평가 받았다.
- 이밖에도 휴식기가 없이 꾸준한 수확이 가능하다는 점도 생산농가 입장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앞으로 농가 분양이 시작되면 조기 확대보급이 기대되는 품종으로 관심이 모아졌다.

\* 출처 : 경남농업기술원

## ■ 시설재배, 난방비 줄이는 관리법

- 다겹보온커튼 설치, 피복재 관리, 환기 철저히 해야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겨울철 시설재배 농가의 경영비를 줄이기 위해 보온력을 높여 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 환경관리 방법을 제시했다.
- 겨울철에는 햇볕이 여름철의 절반 이하이기 때문에 시설 내부로 들어오는 빛이 부족하기 쉽고, 낮은 기온과 높은 상대습도로 작물 재배에 적합한 환경을 만드는데 많은 비용이 든다.
- 시설원예농가에서 난방비가 경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40%로 매우 높다.
- 이에 난방에너지를 줄이기 위해 보온력이 우수한 다겹보온커튼을 설치하고, 낮에는 온실 안으로 일사량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피복재를 관리한다. 또한 환기를 통해 과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재배시설에서 난방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열 손실이 발생하는 출입문, 환기창 등의 틈을 없애고 밀폐도를 높여준다.
- 보온커튼이 습기를 많이 흡수하면 열 손실이 많아지고 보온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시설 내부가 과습하지 않도록 환기를 적절히 하여 보온커튼이 마른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 다겹보온커튼이 젖은 상태가 자주 발생되면 상대습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를 낮추기 위해서는 해 질 무렵 2~3시간 전에 강제 환기를 실시해 내부 습기를 빼내고 야간에 제습장치를 가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 수평커튼 및 보온커튼이 설치된 온실에서 커튼의 윗부분과 아래 부분 간에는 온도가 6~8℃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재배온실의 기온이 충분히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커튼을 열어주면 윗부분에 모여 있는 냉기가 작물에 저온스트레스를 주게 된다.
- 따라서 해 뜬 뒤 1시간 이상 흐른 뒤 시설 내부온도가 충분히 올라간 시점에서 커튼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해 뜬 뒤 30분~1시간 조조가온을 하면 빠른 시간에 생육적온으로 올릴 수 있어 작물 재배에 매우 효과적이다.



▲ 곡부 그늘지는 현상을 줄일 수 있도록 조치

- 다겹보온자재, 수평커튼 등을 열었을 때 시설내부에 그늘지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늘지는 면적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충분히 감아주는 것이 좋다.
- 피복재의 경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먼지 등 이물질이 붙어 투광율을 떨어뜨리게 되기 때문에 두 겹으로 설치한 비닐은 세척해 이물질을 없애주는 것이 적은 노력으로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비닐하우스 피복재는 기존에 많이 사용하는 자재(폴리에틸렌(PE),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보다 광투과율이 높은 폴리오레핀(PO)계 필름이 4~5년 사용할 수 있어 경제성이 있다. 2중 피복할 경우 내부 피복재는 폴리염화비닐(PVC)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 토양 속 살균제 하루 안에 없애는 미생물 발견

- 스팅고모나스 C8-2 균주... 유용미생물 보호·환경오염 예방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트리아졸 계통에 속하는 살균제인 디페노코나졸을 분해하는 미생물을 토양에서 최초로 발견하고 ‘스팡고모나스 C8-2’ 균주로 이름을 붙여 특허출원했다고 밝혔다.
- 디페노코나졸은 각종 과수 및 밭작물에 발생하는 흰가루병·잣빛곰팡이병·낙엽병 등을 방제하는데 사용하는 약제로, 다른 약제에 비해 토양에 남아있는 기간이 길고 어패류에 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실험에서 액체 배지에 디페노코나졸 100 mg/L를 넣은 다음 ‘스팡고모나스 C8-2’ 균주를 처리한 결과, 24시간 내에 살균제를 완전히 분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 분해산물은 토양 속에 있는 세균이나 곰팡이에 대해 독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발견한 ‘스팡고모나스 C8-2’ 균주 및 이 균주를 이용한 토양 속 살균제 제거방법에 대해 특허출원(출원번호 10-2016-0151840)했으며, 관련 연구결과는 한국농약과학회지 12월호에 논문으로 게재됐다.
-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발견한 ‘스팡고모나스 C8-2’ 균주를 활용하면 토양 속에 남아 있는 살균제 성분을 단기간에 친환경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 젓소 보증씨수소 2마리 선발

- 유단백량 상위 2.3%, 최종점수 상위 0.8% 씨수소 나와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농협 젓소개량사업소(소장 차인근)과 가축개량협의회 젓소분과위원회(위원장 경상대학교 이정규 교수)를 열고 젓소 보증씨수소 2마리를 선발했다. 이번에 선발한 보증씨수소 2마리는 크로스(HK-262)와 패트롤(HK-269)이다.
- 크로스는 유량 유전능력이 상위 1.5%로 가장 우수했고, 유단백량 유전능력도 상위 2.3%로 가장 뛰어났다. 선형심사 최종점수도 상위 0.8%로 우수해 체형개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국제유전능력평가에서 유량 유전능력은 상위 1.8%, 선형심사 최종점수의 유전능력은 상위 2.3%를 나타냈다. 이는 국제유전능력 평가에 참여한 한국형 씨수소(1,374마리) 중 유량 및 선형심사 최종점수에서 6위에 해당하는 성적이다.
- 크로스의 아버지는 버크아이(BUCKEYE)로 새로운 혈통을 찾는 농가에게 좋은 선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패트롤은 후보씨수소 가운데 유지방량 유전능력이 가장 우수했는데 실제 선발에서도 전체 씨수소 가운데 상위 0.1%를 차지했다. 이에 젓소 보증씨수소 선발지수인 체형능력종합지수(KTPI) 순위에서 후보씨수소 중 1위에 올랐다.
- 또한, 국제 젓소유전능력평가에서 유지방량이 상위 0.3%를 차지해 한국형 씨수소 중 나이스 다음으로 우수한 성적을 나타냈다.
- 농협 젓소개량사업소는 최근 아프리카 우간다로 젓소 정액을 수출하고 있다. 패트롤은 씨수소 자신과 딸소 모색(털색)의 대부분이 검정색이어서 털이 검정색인 씨수소를 선호하는 아프리카 수출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 크로스 딸소의 유량 평균은 9,286, 유단백량 평균은 303kg, 선형심사 최종점수 평균은 77점으로 우수한 성적을 나타냈다. 패트롤 딸소의 유량 평균은 8,974, 유지방량 평균은 382kg, 선형심사 최종점수 평균은 77점이다.
- 젖소 보증씨수소 선발과 정액 공급은 농림축산식품부 젖소개량 사업의 하나다.
- 농협 젖소개량사업소가 후보씨수소 생산과 후대검정을, 한국종축 개량협회가 혈통등록과 선형심사를, 책임운영기관인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 유전능력평가를 하면, 가축개량협의회 젖소분과에서 유전능력이 우수하고 젖소개량에 기여할 보증씨수소를 선발한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 김시동 과장은 “고능력 수정란을 도입해 우리나라 환경에서 우수한 성적을 발휘한 씨수소를 선발한 것이므로 농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이들 보증씨수소의 정액은 농협 젖소개량사업소에서 가격을 결정하고 1월에 정액을 생산한 뒤, 농협 가축개량원을 통해 2월부터 젖소농가에 공급할 예정이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크로스(HK-262)



▲ 패트롤(HK-269)

## 7. 정책 동향

### ◆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한다

- 전남도, 2017년부터 신규 지원... 보험료의 70% 보조 -

- 전라남도는 2017년부터 고령화, 농기계·농약 사용 등 농업인의 안전 재해 위험증가 추세에 따라 ‘농업인 안전보험’을 지원하기 위해 도비 3억 2천만원 등 총 11억원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업인의 신체상해 등을 보상해 안정적 농업 경영활동을 보장하는 정책보험 상품이다.
- 만 15세부터 84세까지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까운 농협 등에서 연중 가입할 수 있다.
- 보험료의 경우 지금까지 국비로 50을 지원하고, 농가가 50%를 부담했으나 2017년부터는 도와 시·군이 추가로 20을 지원해 실제 농가에서는 산출보험료의 30%만 납부하면 된다.
- 보장 기간은 1년으로 농작업 중 발생하는 상해와 농약중독, 특정 감염병 등 질병치료 때 보험혜택을 볼 수 있다.
- 보장 내용은 사망 시 유족급여와 장례비, 상해·질병 시 치료비와 장해급여, 간병비 등이다.
- 최향철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농기계 사용증가 등으로 농업인의 안전재해 노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2017년부터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 만큼 농업인 안전을 위해 많이 가입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라남도

## ◆ 계란 수급안정화 방안

- AI 방역조치에 따른 산란계 살처분 마릿수 증가(산란계 총마릿수 69,853천수 중 15,934천수, 22.8%)로 계란 공급량이 줄어, 12.22일 기준 소비자 가격이 지난달 대비 27.1, 산지가격이 37% 상승하였다.
- 정부는 계란 수급 및 가격안정과 산란계 사육기반의 조기 회복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 계란 수급안정을 위해,
  - 부처 합동 점검을 통해 사재기 행위 등 유통 상황 점검
  - 가공용 계란 주요 수요처인 제과·제빵업체의 원가 절감을 위해 할당관세 적용 등 가공용 계란수입 부담완화
  - 소비자 부담 경감과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신선란 항공운송비 지원 등 추진
  - 산란계 생산기반 회복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산란계 생산주령 연장 및 산란 실용계(CC) 수입지원
- 계란 수급 및 유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재부 차관보,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을 공동팀장으로 하는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하여 수급대책 이행, 계란수입 지원, 계란수입 가능한 국내가격 검토, 사재기 감시예방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 「콩 농업수입보장보험」 가입농가에 가뭄과 태풍 등 피해에 따른 보험금 지급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는 금년 가뭄과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콩 재배농가 중 농업수입보장보험에 가입한 농가의 수확량을 조사한 결과 425호 농가에게 지급될 수입(조수입, 粗收入) 감소 보험금이 약 14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또한, 콩 주출하기인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시장가격이 최근 5년간 평균 시장가격보다 하락할 경우에는 가격하락에 대한 보상이 추가되어 지급되는 보험금이 증액된다.
- 농업수입보장보험(이하 농업수입보험)은 농식품부가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 중인 사업으로써 농업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뿐만 아니라 가격하락 위험까지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이다.
- 금년 콩 농업수입보험은 시범지역 5개 시·군(정선·김제·문경·제주, 서귀포)에서 687호 농가 1,091ha가 가입 했으며, 이 중 가뭄과 태풍 등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에게 농가당 평균 32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 자연재해로 보험금을 받는 농가의 피해원인은 가뭄, 강풍, 호우, 조수해 피해 순이었으며, 피해가 많은 지역은 제주·문경·김제 순으로 나타났다.
- 농업수입보험은 시장가격하락에 따른 농업수입 감소에 대해서도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콩 주출하기 시장가격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 시장가격은 백태와 서리태·흑태는 도매시장 가격을 사용하고, 콩나물콩 가격은 제주지역농협 구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한다.
- 따라서, 재해로 인한 피해 보험금 일부가 이번에 지급되는 것이며, 시장가격이 결정되는 내년 2월에 농가별 수확량과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최종 산출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 금년에는 콩·마늘·양파·포도 재배 농가만 농업수입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17년부터 고구마와 감자 재배농가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확대 할 계획이며, 품목별 가입대상지역의 지역농협에서 가입하면 된다.
  - 품목별 가입 지역은 마늘(태안·의성·고흥·창녕·제주·서귀포), 양파(익산·함평·무안·청도·창녕·합천), 포도(화성·가평·상주·영주·영천)이며, 보험가입 및 세부 내용은 지역농협이나 농협손해보험(☎ 1644-8900)에 문의
- 보험료의 50%는 국가가 지원하고, 지자체별로 30%내외를 추가 지원하기 때문에 가입농가는 국가 및 지자체 보조금을 제외한 20%정도를 납부하면 된다.
- 농업수입보험은 품목별 실제조수입이 보험가입 때 정한 보장조수입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농식품부는 농업수입보험이 농업인의 경영과 소득안정을 위한 제도로써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 긴급상황 대비 항원뱅크 구축 추진

-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현재까지 고병원성 AI 백신개발은 종독주 (Seed bank) 구축 차원에서 준비되어 오고 있음을 밝혔다.
- 외국에서는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이집트에서 AI 백신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 나라들은 HPAI가 상재화되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나라들이다. 공통적으로 백신접종을 하는 국가에서 인체감염 사례가 발생되고 있고, 중국의 경우 광범위한 백신접종으로 변이된 다양한 종류의 AI 바이러스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 축산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우선 살처분 정책을 사용하고 있으며, 살처분 만으로 박멸하기 어려운 경우 백신접종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 이에 따라 검역본부에서는 긴급상황 등에 대비하여 항원뱅크 구축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 항원뱅크 : 백신 완제품을 만들기 위한 전단계로 백신 바이러스를 대량 생산해서 냉동 보관해 놓은 상태
-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고병원성 AI가 상재하고 있는 중국과 연접해 있고, 함께 철새 이동경로 상에 몽골·러시아 등이 있어 매년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가능성을 있음을 감안해야 하고, 또한, 항원뱅크 구축 등 세부적인 추진내용은 전문가 등과 계속 협의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8. 해외 농업정보

### ◆ 중국, 스마트농업에 대한 관심 증가

- 중국 국민의 소득이 높아지며 웰빙(Well-bing), 친환경,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음. 중국 유기농 시장 연 매출액 300억원 수준 (세계 4위 유기농식품 소비국)임
- 중국 중산층 인구는 현재 1억 5,000만명에서 10년 내 4억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농경지 감소, 농촌 고령화 등 중국 전통 농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농업을 규모화, 직접화, 생산효율화, 산업화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스마트농업이 주목받고 있음
- 스마트농업은 특히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농업 생산물의 품질과 생산 효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어, 최근 농업 노동인구 및 농지 감소 등의 현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임. 중국에서는 스마트 농업이 '지혜농업'이라는 용어로 사용됨
- 중국 정부는 '중국 제조 2025' 정책을 통해 첨단 농기구 및 핵심 부품 개발에 집중할 것을 발표하였음. 또한 2016년 10월 20일 중국 국무원은 <전국 농업 현대화 계획(2016-20년)>을 발표하며 농업 현대화의 일환으로 스마트농업을 언급하였음. 구체적인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기술 장비와 정보화 수준제고 : 중국 정부는 농민의 모바일 및 인터넷 활용률을 높여 모든 농가가 최신 농업기술에 쉽게 접근하도록 장려함. 또한, 세계 농업 데이터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주요 농산품의 수요 공급 정보를 정기적으로 발표할 예정임
- 사물인터넷 도입 및 스마트농업 응용시범구역 건설 : 정부는 농업·축산업·어업 생산에 사물인터넷을 적용하는 시범구역을 건설할 계획임

- 중국의 스마트농업은 1980년대부터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며 발전 속도는 매우 빠른 편임. 중국 스마트농업 산업규모는 2013년 4,000억 위안(약 581억 9,668만달러), 2014년 4,807억위안(약 677억 3,786만 달러)에서 2015년에는 6,000억위안(약 872억 9,500만달러)을 돌파함
- 2014년 중국 인터넷 사용자는 6억 6,800만명이며, 이 중 농촌지역 거주 이용자는 1억 7,800만명임. 인터넷을 이용해 상품을 구입한 농민은 7,714만명으로 2013년 대비 40.6% 증가하였음. 인터넷 보급 정책의 영향으로 농촌인구의 인터넷 사용률이 증가하고 있음
-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농촌 전자상거래서비스 사이트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농촌의 유통 인프라와 모바일 전자상거래가 발전하여 큰 발전 잠재력을 갖고 있음
- 농업용 무인기는 지능화된 농업기계로써 주로 관개, 비료 및 살충제 분사(살포), 병해충 예방 등에 투입됨. 농업 무인기는 노동력 절약, 높은 작업효율 등의 장점이 있음. 민간용 무인기가 점차 보급되고 농업 생산의 자동화 수요가 높아져 농업 무인기 시장의 발전은 지속될 것임
- 현재 많은 기업이 농업 무인기 부문에 투자하고 있으며 상용 드론 제조업체 다쟝(大疆)도 이미 농업 무인기를 생산하고 있음
- 중국의 스마트농업은 발전 초기단계이며, 특히 자료수집 및 분석 기술에서 선진국에 비해 뒤처짐. 스마트농업의 발전은 과학기술 수준에 달려있기 때문에 기술을 보유한 인재육성에 집중해야 함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덴마크, 유기농산업

- 덴마크는 유기농산업이 발달한 국가이며, 유기농식품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매우 많음. 덴마크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유기농식품 총 판매액은 9억 3,518만 7,983유로(약 10억 238만달러)임
- 덴마크의 유기농산업은 1980년대부터 발전하기 시작하였음. 1980년대에 정부는 유기농산업 발전계획을 국가 농업정책에 포함시키고, 유기농업으로 전환하는 농가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였음
- 덴마크 농수산식품부는 2020년까지 유기농업 경작면적을 2배 이상 넓혀 유기경작지 비율을 2007년 7에서 2020년 15%까지 확대할 계획임(한국의 유기재배지 비율은 약 1% 수준). 최근 유기농식품의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되자 덴마크 정부는 유기경작지 확대에 힘을 쏟고 있음
- 덴마크는 유치원, 병원, 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단체급식에서 약 60% 이상의 재료를 유기농식품으로 대체하였음. 또한 교육부는 유기농업과 환경, 유기농식품의 장점 등을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시킴. 덴마크 정부는 1989년부터 국가차원에서 유기농제품을 관리하기 위해 유기농 인증마크(Ø-label)를 발급하고 있음
- 덴마크 오르후스 대학(Århus Universitet)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70%가 건강한 식품소비를 위해 더 많은 세금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응답하였음. 이는 폴란드·이탈리아·벨기에·영국의 응답자에 비해 약 20% 높은 수치임. 2015년 기준, 덴마크 국민 1인당 연간 소비액 중 유기농식품 소비는 223유로(약 239달러)임
- 유기농제품과 일반제품의 가격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덴마크 소비자는 유기농제품을 구매함

- 덴마크 소비자는 정부가 관리하는 유기농 인증마크(‘Ø-label’)를 신뢰함
- 정부는 2년 동안 유기농작으로 관리한 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한해 인증마크를 부여함. 유기농 인증마크를 부착하려는 수입식품은 덴마크에서 포장과 라벨링 작업을 진행해야 함
- 덴마크 대표 슈퍼마켓 Irma는 80여개의 지점을 보유함. Irma 매장 전 제품의 50%가 유기농제품이며 해당제품 가격표 옆에 유기농 (Økologisk) 마크가 표시돼 소비자들이 쉽게 식별 가능함. Irma는 윤리적 소비를 독려하여 철장에 갇힌 닭이 생산하는 달걀이나 환경을 악화시키는 섬유유연제 등을 전 매장에 판매 중지시킴
- 덴마크 유기농 의류기업 The Organic Company는 2007년에 설립되었으며 유기농 수건, 가방, 앞치마 등을 판매함. The Organic Company의 전 제품은 국제 유기직물 기준(GOTS, Global Organic Textile Standard)을 통과하여 국제 에코라벨(Eco Label)을 획득하였음
- Franck & Fischer은 2005년에 설립된 덴마크 친환경 영유아 장난감 브랜드로, 아기의 감각 발달을 돕는 디자인과 색감으로 유럽에서 인기를 끌고 있음. Franck & Fischer은 자연 상태의 퇴비를 사용해 재배한 유기농 원단으로 GOTS 인증을 획득했으며, 제품생산에 화학 염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음. 가격대는 20~60유로 사이(약 21~64달러)임
- 우리나라 소비자의 유기농식품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으며 유기농 시장은 연 10%씩 성장하고 있음. 유기식품 소비 및 생산을 꾸준히 늘리기 위해 덴마크 및 유럽의 선진 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6. 12. 26.(시카고 선물거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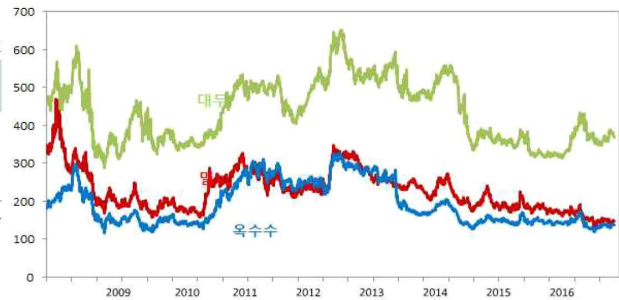
한 주간 평균 3% 하락한 곡물 선물 가격

## 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

구분	기준일 ('16.12.23)	전일대비	전월평균 ('16.11)	2015 평균
밀	144.55	▼0.9%	148	186
옥수수	136.06	▼0.5%	136	148
대두	363.39	▼0.5%	369	347

주) 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적색연질밀: SRW), 옥수수, 대두의 근월물(밀, 옥수수: 3월물, 대두: 1월물) 정산가격임.

단위: US\$/ton



### 밀 선물시장 상황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밀 선물 가격은 풍부한 국제 공급량과 미국산 밀에 대한 수요 둔화로 인해 전일 대비 하락하였음. 밀 선물 가격은 한 주간 3% 가까이 하락하였음. 밀 선물의 미결제약정수는 지난 목요일 장에서 가격이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동안 최근 한 달이래 가장 많은 수준으로 증가하였음. 인도의 내년 4월 밀 재고량은 최근 10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음.

### 옥수수 선물시장 상황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옥수수 선물 가격은 풍부한 미국 공급량과 아르헨티나 지역에 내린 비로 인해 전일 대비 하락 마감하였음. 옥수수 선물 가격은 한 주간 2.8% 하락하였으며 이는 지난 8월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인 것으로 나타남.

### 대두 선물시장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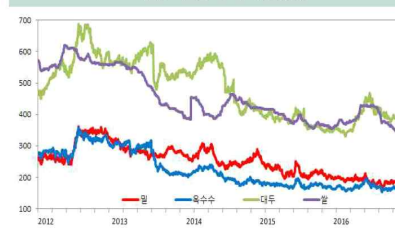


시카고 선물 거래소 대두 선물 가격은 아르헨티나에 내린 비로 인해 생산량 감소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최근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유지작물의 하락세 또한 대두 가격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금요일 대두 선물 가격은 지난 11월 18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부셸 당 9.87 달러까지 하락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다시 소폭 상승하며 9.95달러에 마감하였음. 대두 선물 가격은 한 주간 4% 이상 하락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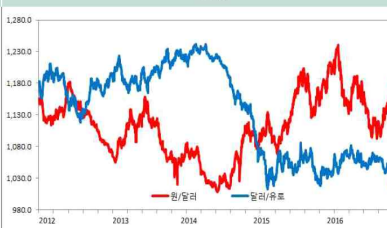
### 관련동향

- 겔프만 옥수수 수출 프리미엄은 CIF barge price 상승에 따라 강세를 보임.
- 23일 국제유가는 산유국의 감산 기대 지속, 미 달러화 약세 등으로 상승하였고, 미 원유 시추기수 증가, 리비아의 원유 생산 증가 등은 상승폭을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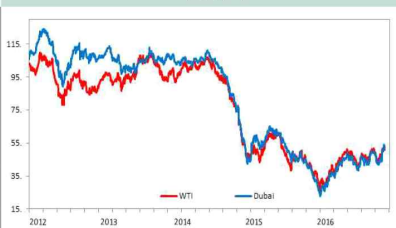
### 곡물 수출가격 (FOB)



### 환율



### 국제유가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곡물수출가격 (FOB)	밀	170 ▼0.6%	환율	원/달러	1,198.0 ▲0.3%
	옥수수	159 ▲0.6%		달러/유로	1.0434 -
	대두	387 ▼1.3%	국제유가	WTI	53.02 ▲0.1%
	쌀	367 -		Dubai	52.21 ▲0.8%

주 1) 밀(US SRW Gulf), 옥수수(US 3YC Gulf), 대두(US Gulf), 쌀(Thailand 100% Grande B), WTI(2월물), Dubai(현물)

2) 기준일은 '16.12.22(수출가격), '16.12.23(환율), '16.12.23(국제유가)이며 자료출처(국제곡물이사회,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의 업데이트 날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Daily World Grain Report

E-mail : wonjeong@krei.re.kr (해외곡물시장 담당자)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 9. 사업신청 및 홍보 안내

### ◆ 전남농기원, 전국단위 농업기술대상 우수연구팀상 수상

- 친환경 병해충 종합관리기술 개발에 기여한 공 인정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2016년 전국 단위 농업기술대상 연구팀 평가에서 우수연구팀상을 수상하였다고 밝혔다.
- 친환경농업 현장에서 겪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병해충 방제 기술로 마땅한 약제가 없어 직접 제조하여 사용하는데 번거롭고 효과도 신통치 않아 어려움이 많았다.
- 그동안 연구팀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천연자재를 이용하여 친환경 병해충 방제제를 개발, 특허출원 19건, 기술이전 15건을 통해 친환경농업 저변확대에 기여하였고, 포도·단감 등 10여종의 유기재배 매뉴얼 발간으로 친환경농업 확산 및 내실화에도 기여하였다. 또한 기후변화 등에 따라 문제되는 돌발 및 문제 병해충에 대한 종합관리기술 개발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 고숙주 작물보호팀장은 “농업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온 결과가 좋은 평가를 받아 뿌듯하다” 며 앞으로는 “병해충을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고품질 농산물 안전생산과 농가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 내 농장 병해충 스마트폰으로 진단·처방 받는다

- 수요자 맞춤형 농작물 정보 주기별 제공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병해충 발생이 높아짐에 따라 농가의 병해충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요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병해충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측해서 조기 방제를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사과·배·감귤·고추·마늘 등 9작물에서 주로 발생하는 꼬마배나무이·탄저병·잎도열병 등 47종 병해충을 미리 예측해 대비할 수 있는 '내 농장 병해충 예측 서비스'를 선보인다.
- 이 서비스는 스마트폰으로도 언제 어디서든 내 농장에서 재배하는 작물의 병해충 발생 위험수준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적기방제를 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 이번에 개선한 병해충정보시스템(ncpms.rda.go.kr)은 수요자 맞춤형으로 농장에서 재배하는 작물의 병해충을 매일 예측해서 알려주면서 7일 또는 1개월 주기의 병해충 예측과 방제일정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내 농장의 병해충 발생 위험수준을 실시간으로 휴대전화를 통해 단문메시지서비스(SMS)로 받아 볼 수 있다.
- 농업인이 영농현장에서 작물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이 무엇인지 궁금할 때는 스마트폰으로 병 징후를 사진으로 찍어 '병해충 진단앱(App)'에 문의하면 병해충 전문가 진단과 다른 농업인의 현장 경험이 더해져 신속·정확한 병해충 진단을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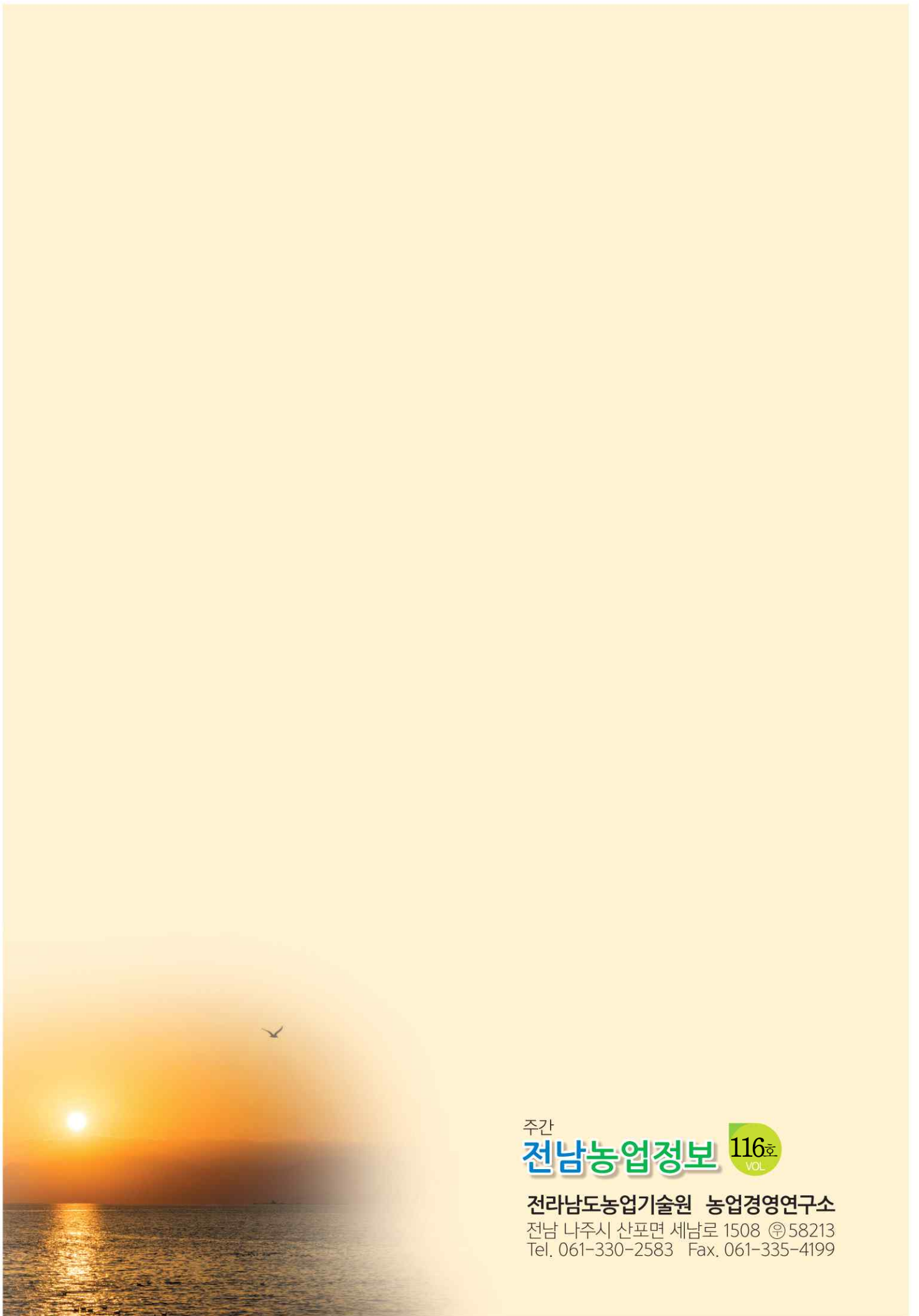
\* 출처 : 농촌진흥청

## ◆ 농업회계, 쉽게 기록하고 활용하자

- 농업회계 프로그램 회계박사 개발... 사례집과 함께 제공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농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농업회계 프로그램 ‘회계박사’를 개발하고, 프로그램 사용을 위한 회계처리 사례집을 보급한다.
- 그 동안 농업분야의 농업회계 처리기준에 통일성이 없었고, 중소기업 회계기준을 적용한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 농업법인과 회계사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 이번에 개발한 농업회계 프로그램은 생물을 다루고 있다는 점과 장기간의 생산기간, 생육과 판매과정 등 다양한 농업의 특수성을 반영했다. 또한 식량작물, 원예작물, 축산분야로 세분화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 사례집은 한 해 동안 영농을 하면서 일어나는 거래를 입력하고, 결산 및 재무제표를 도출하는 전 과정을 소개하고 있어 경영주가 회계기록 과정을 따라할 수 있게 했다.
- 기록한 결과는 경영주 본인이 자산의 상태와 경영성과를 파악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되며, 전문가에게 회계자료를 제공하면 경영개선을 위한 컨설팅에 활용할 수 있다.
- 농업회계 프로그램은 농촌진흥청 누리집의 농사로(<http://www.nongsaro.go.kr>) 농업경영자료실에서 내려 받아 활용할 수 있다.
- 또한 농업회계처리 사례집은 전국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 센터에 배부하며, 전자책(e-Book)으로 제작해 농업과학기술도서출판 사이트 농서남북(<http://lib.rda.go.kr/pod>)에서도 볼 수 있을 예정이다.

\* 출처 : 농촌진흥청



주간

**전남농업정보**

**116호**  
VOL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업경영연구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 58213  
Tel. 061-330-2583 Fax. 061-335-4199